

EBX, 태양에너지 활용 전력 생산

1만2000㎡에 81억6000만원 투자 ... 2015년 태양에너지 1000MW 생산

브라질 최대 갑부인 EBX그룹의 Eike Batista 회장이 브라질 최초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상업용 전력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Eike Batista 회장은 8월4일(현지시간) 브라질 북동부 Seara Taua에서 태양에너지 생산시설 <MPX Solar Taua>의 준공식을 열었다.

<MPX Solar Taua>는 1만2000㎡ 부지에 조성됐으며 4680개의 집열판이 설치됐다.

Eike Batista 회장은 자신의 Twitter를 통해 <MPX 솔라 타우아>의 완공을 알리고, 초기에 1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앞으로 5MW까지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MPX Solar Taua> 건설에는 1200만헤알(약 81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Eike Batista 회장 이외에 Seara 지방정부, Taua시, 미주개발은행(IDB)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ike Batista 회장은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브라질에 집열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2015년까지 1000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MPX를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BX 그룹은 MMX(광산), OSX(조선), OGX(석유·천연가스), MPX(에너지), LLX(물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08>